



파리 시청은 프랑스 혁명 당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시민군의 두번째 타깃이었다. 파리 시청 앞 광장에는 처음으로 단두대가 설치됐다. <양문 제공>

혁명의 자취따라 즐기는 파리의 속살

정상필 전 광주일보 기자

역사·인물 담은 '파리 오디세이' 펴내
에펠탑·개선문... 도시가 하나의 '작품'
새로운 변화 추구하는 '역동성' 주목

지난 4월 세계문화유산인 노트르담 대성당이 불길에 휩싸였다. 세계인들은 너나없이 노트르담 대성당과 파리 시민들의 상심을 안타깝게 지켜봤다. 파리는 프랑스만의 도시가 아니라 자유와 인권을 지향하는 이들의 도시로 인식돼왔다. 또한 파리는 근대예술의 요람이자 19세기 문화의 수도였다. 파리는 오늘날 세계인들의 즐겨 찾는 문화예술의 중심지가 됐다.

혁명의 도시 파리를 키워드로 찾아가는 기행서가 출간돼 눈길을 끈다.

정상필 전 광주일보 기자가 펴낸 '파리 오디세이' (양문)는 혁명의 자취를 따라가며 즐기는 역사탐험서다. 파리에서 공부하고 프랑스인 아내와 함께 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저자는 매력적인 도시 파리의 속살을 조곤조곤 들려준다. 직접 현장을 취재해 역사와 인물, 에피소드를 엮어 풀어낸 책은 생생한 현장감을 준다.

책은 파리가 가장 풍요로웠던 벨 에포크 시대의 기록이자 상기로 다가온다. 저자는 그들의 '아름다운 시절'은 거저 오지 않았고 당연히 파리의 오늘도 아무런 수고 없이 얻은 것이 아니었다고 본다. 파리는 공화정과 왕정을 오가던 격동의 19세기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그 뿌리는 대혁명이었다. 파리는 도시의 형성은 1000년 전의 일이지만, 그 뿌리는 대혁명이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파리는 19세기에

빛을 지고 있고, 파리를 제대로 알기 위해 19세기 파리로 떠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다. 저자는 19세기 말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20세기 초까지를 '좋은 시절'이라는 뜻의 '벨 에포크'라고 설명한다. 이 시기 나폴레옹 3세가 파리를 재정비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만나게 되는 파리의 길과 베크시방, 공동묘지와 공원, 백화점과 도서관, 지하철과 카페들이 이 시기에 비롯됐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 아름다운 시절에 파리는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문화의 수도'로 불리게 됐다. 저자는 "이 시절에 대한 향수는 파리지역의 본능에 질게 남아 있고, 단절되지 않은 역사로 파리 전체에 남아 있다"고 덧붙인다.

책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는 파리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작품'이라는 사실이다. 노트르담 성당,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개선문 등은 기념비적인 건축물이다. 이들 건물이 적게는 100년, 많게는 1000년 넘게 보존되는 것은 대부분 석조건물이라는 점 때문이지만 다른 요인도 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프랑스인들이 건축을 대하는 자세와 방식이다. 관리 보수에 전문학적 역수의



돈을 들이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새롭게 건축되는 건물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철학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저자는 크기와 웅장함뿐 아니라 구석구석 섬세한 맛까지 갖췄다고 강조한다. 여기에 또 하나 덧붙일 게 있다면 바로 '스토리텔링'이다.

"주변과의 조화는 커녕 다소 엉뚱해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건축 자체나 건축가의 철학과 시대를 앞서는 첨단기술, 독특한 디자인 등에 건물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들이 스토리텔링으로 더해지면서 새로운 전설이 '만들어'진다."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지난 역사가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파리의 역동성이다. "파리는 역사 속의 도시가 아니라 역사를 써가고 있는 도시"라고 강조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1989년 프랑스 혁명 200주년을 기념해 루브르 박물관 중정에 들어선 유리 파미드는 건립 당시에 적잖은 반대에 부딪혔지만 지금은 파리의 또 다른 상징물로 인식된다.

이 같은 창의적인 발상과 시각은 왕정의 권위를 무너뜨린 혁명의 정신에서 비롯됐다. 저자는 "소수 귀족과 특권계층의 전유물이던 문화와 지식이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로 주어졌다"며 "역사문화기행을 하듯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몇 편의 영화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19세기 혁명의 도시 파리 속에 스며 있는 자유와 평등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밖에 책에는 '파리와 길', '파리와 센강', '파리와 극장' 등 다양한 내용들이 수록돼 있다. 파리를 여행하거나 깊이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 같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민인문학 정기강좌 30일까지 열려

광주시민인문학의 68기 정기강좌가 3일부터 30일까지 전남대 정문 앞 카페 '노블'에서 열린다.

수요일을 제외하고 월요일(오후 7시30분)부터 토요일(오후 2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글쓰기, 독서, 철학, 인문학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른다.

월요일에는 이진 교수가 '대서사시 박경리의 '토지'-여성적 자아탐색의 여정'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화요일에는 명혜영 교수가 '인문적 글쓰기로, '나'를 만나다'를 진행한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각각 신우진 씨가 '목회회, 십인십책', 명혜영 교수가

'몸으로서의 정신-베르그송 '물질과 기억'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단 14일(금요일)에는 박주희 교수의 인문특강 '근대여성 다시알기-포스트모더니즘과 여성'이 진행된다. 토요일에는 명혜영 교수와 진정 한 씨의 '영화로 읽는 '살, 여성, 가족, 개인''이 예정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광주시민인문학' 참조. 문의 010-4624-1201, 062-412-8791.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팔리아치' 광주 공연



박영환



손아름



구성희



김정규

광주오페라단...7-9일 문예회관

김어진 연출, 클랑십포니오케스트라 협연

서민의 삶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사실주의' 오페라 대표작들을 한 데 모은 무대가 마련된다. 광주오페라단 (단장 김기준)이 오는 7-8일 오후 7시 30분, 9일 오후 5시 총 3회에 걸쳐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단막 오페라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를 공연하고, 레온카발로의 '팔리아치'를 광주 초연한다.

광주시와 한국메세나협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공연은 광주오페라단의 44번째 정기 공연이며, 시로부터 '2019 오페라 공연활동 지원사업'으로 4000여만원을 지원받아 총 제작비 1억 4260만원의 예산을 들었다.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는 1880년께 시칠리아 섬의 한 촌락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갓 재대한 마을의 젊은 청년 푸릿두는 입대 전 애인 로라를 잊지 못해 상심에 빠진다. 푸릿두는 자신을 위로해주는 마을 처녀 썬투자를 만나 사랑하는 사이가 되지만, 옛사랑을 잊지 못하고 이내 삼각관계로 치달는다.

'팔리아치'는 1860년대 이탈리아의 칼라브리아 안 마을에 찾아온 '코메디아 델 아르테 흥행단' 단원인 한 가족의 질투에서 비롯한 비극을 다룬다. 바람기가 있는 단원 넷다는 집적이 심하고 주

변의 모든 남자를 질투하는 남편 카니오 단장이 맘에 들지 않는다. 넷다의 바람기가 광대 실비오를 향하자 카니오와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카니오는 마침내 칼을 꺼내든다.

이번 작품들은 귀족 중심 오페라에서 벗어나 서민의 이야기를 담은 사실주의(Verismo) 오페라로 알려졌다. 두 작품은 제작 시기와 분위기가 비슷해 일반적으로 한 자리에서 함께 공연되곤 했으나, 여러차례 공연을 가졌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와 달리 '팔리아치'는 테너가 9명이나 필요한데다 난이도가 높고, 지역에서 테너를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까지 겹쳐 광주에서 공연되지 않았다는 게 광주오페라단의 설명이다.

이번 공연은 김병무 지휘자가 지휘봉을 잡고 길예영 소프라노가 예술감독을, 김어진 연출가가 연출을 맡는다. 주연으로 구성희·박희현·나혜숙이 썬투자를, 손아름·박혜경·김아리가 로라를 분한다. '팔리아치'에서는 이환희·사윤정·임현진이 넷다 역을, 김정규·윤승환·고규남이 카니오 역을 맡았다. 또 '클랑 십포니 오케스트라'와 전남대 학생 등으로 구성된 '광주 익투스 코랄'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 '칸타빌레 싱어즈'가 함께 무대를 꾸민다.

V.VIP석 10만원, VIP석 8만원,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중·고석 1만원. 문의 062-412-2524, 010-3646-5766.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조선의 시인 '돌이라는 새' 출판기념회

8일 광주 5·18교육관

신성정출판문화상, 감만중문학상 수상자인 조선의 시인의 작품집 '돌이라는 새' (시산책)의 출판기념회가 오는 8일 오후 2시 광주 5·18교육관 강당(광주시 서구 치평동)에서 열린다.

이번 시집은 조 시인이 시산책 제22차 감성기획시선공모 당선 작품집으로 펴냈으며 모두 50여 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 시간에 대한 단상을 정갈한 시어로 형상화한 시들은 특유의 울림을 준다.

권은 문학평론가는 해설에서 "그의 시를 읽는 일은 신선하고 낯선 경험이자 한국시의 숨은 보석을 만나는 행운과 다른 말이 아니었다"며 "시인은 '말어진 것들'이나 '익숙한 것부터 낱아지기 시작할 때' 또는 '숨겨져 드러나는 것들' 등의 표현으로 '순간'이나 '한때'라는 이름으로 소멸



하거나 되살아나는 시간의 운명을 포착한다"고 평한다.

한편 조선의 시인은 농민시인 신춘문예로 문단에 나왔으며 시집 '당신, 반칙이야', '어쩌면 쓰라린 날은 꽃피는 동안이다' 등과 시창작교재 '생명의 시'를 펴냈다. 현재 서은문예연구소 소장 겸 시창작반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2-764-872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www.aroma-life.co.kr

광주역
엔씨백화점
광주역점
오리거리
아로마라이프
성요한병원
유동사거리

FACE 메이크업만 하는 시대는 끝!
이제는 BODY 메이크 UP!
하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 속속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모리온	아모리온 롱바디	아실리 바디슈트 슈에드	비비드아모르
브라+슈트+거울 4개국 특허 3년 일체형 슈트	브라+슈트+거울+래깅스 4개국 특허 4년 일체형 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런닝 + 팬츠 2년 일체형 남성용 슈트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습성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기공
원적외선 기공

대리점-총판문의
1588-2219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경일로 235 V&G빌딩
서울사옥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축복빌딩(도곡동 518-9)